

예배 순서

2025년 추석을 맞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시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기 도 가족 중에(또는 인도자)

성경봉독 하박국 3:17-18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선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맞는 명절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풍성함만 가득한 것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애기치 못한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마치 멀게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20세기 영성의 거장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여사의 이야기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 텐 붐과 그녀의 언니 뱃시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1944년 나치 독일의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비위생적인 막사에 들끓는 '이'였습니다. 온몸을 물어뜯는 이 때문에 잠을 이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동생 코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언니 뱃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이 막사에 이가 들끓는 것조차도 감사하자"고 동생을 독려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니의 믿음에 순종하여 마지못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막사에서는 감시병들의 수시적인 감시와 폭행이 있었지만, 유독 그들이 있는 막사에는 감시병들이 들어오기를 꺼렸습니다. 바로 그들을 괴롭히던 '이'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코리와 뱃시는 막사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듯,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담으면 고통의 그릇이 되지만, 감사를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한 때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맏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합 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원망과 한숨 대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인도자

찬 송 302장 (1절과 2절만)

주기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모와 축복 이제 가족 간에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거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계시면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추모합니다.

2025 추석 가정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 일 시 : 2025년 10월 6일(월)

■ 장 소 : 각 가정의 적당한 곳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중앙교회